

문화예술 | Latin American Culture

칠레가톨릭대학교의 한국학

민원정

칠레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에서 아시아학 연구는 아직은 제법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칠레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세계사에서 아시아와 관련된 부분은 매우 적다. 또한 오늘날 칠레에서 한국은 주로 상업적인 교류 대상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이해의 중요성이 경제적인 교류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 서서히 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칠레가톨릭대학교는 장차 칠레사회의 리더가 될 학생들에게 아시아와 관련된 수업과 여러 활동을 제공하여 아시아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 예로 아시아학센터에서는 아시아와 관련된 팀티칭 필수 코스 두 과목을 듣고 다른 세 과목을 들으면 아시아학부전공을 인정해준다. 한국학도 이런 맥락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칠레가톨릭대학교의 본격적인 아시아학 연구는 2002년 아시아프로그램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후 2012년 아시아프로그램이 아시아학센터로 승격했고, 센터 내의 한국학 관련 활동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한국학 관련 수업,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학논문대회, 한국학국제세미나 및 출판 등을 통해 학교 내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2006년부터 시작된 국제교류재단의 한국학프로그램지원 사업이 한국학 관련 활동을 위한 주춧돌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한국학 관련 활동은 수업, 연구, 지원활동(Outreach Program)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학 관련 수업으로는 2014년 현재 한국의 역사와 문화, 역사 속 한국여성, 한·중남미비교문화 등이 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매 학기 말 학생들이 후통일시물레이션을 한다. 역사 속 한국여성 시간에는 한국의 산전·산후 휴가에 대해 토론한다. 한·중남미 비교문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한국과 중남미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배운다. 필자는 프로젝트 디렉터로서 한국과 중남미의 문화 소통(Intercultural Communication)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



제6회 국제한국학세미나(출처: 필자)

지원활동으로는 아시아 스터디그룹, 한국영화제, 한국학논문대회 그리고 한국학국제세미나를 들 수 있다. 아시아 스터디그룹은 2005년 2학기 필자가 한국의 동아리 개념을 차용해 만든 일종의 파일럿그룹이다. 칠레에 온 아시아권 교환학생들이나 아시아에 관심이 있는 칠레학생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아시아 스터디그룹의 활동 중 하나가 바로 한국영화제이다. 초기에는 한국에서 기증 받은 영화를 상영하는 데서 시작되었으나 2011년부터는 매학기 한국교환학생과 칠레가톨릭대학교 학생이 짝을 이루어 영화 선정·번역·자막·포스터 작업 등을 하는 일종의 학생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학논문대회는 칠레가톨릭대학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2007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제8회를 맞이했다. 수상자들의 주제는 한국과 칠레의 정체성 비교, 교육, K-Jazz, 판소리와 로만세로, 한글의 천지인사상, 독도,

영화, 샤머니즘, 한국기업의 칠레진출,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하다. 수상자들의 전공 또한 법학, 정치학, 문학, 신문방송학, 생물학, 역사학, 토목공학, 지리학, 농학, 음악, 미술 등 다양하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상작들은 2011년 『씨앗심기, 싹틔우기, 꽃피우기: 칠레 젊은이들이 바라보는 한국』이라는 제하의 책으로 출판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매년 학생들이 제출하는 논문의 질이 향상되고 있으며 심사는 아시아학센터 교수들이 담당한다. 심사위원들의 전공 또한 법학, 정치학, 문학 등으로 다양하다. 한국학논문대회는 학생들에게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부여하는데 효과적인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수업, 영화제, 논문대회 등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라면 한국학국제세미나는 연구자들을 위한 학술대회다. 2008년에 시작되어 매년 약 열 명 남짓의 국내외 학자들이 한국과 관련한 연구업적을 발표하고 토의한다. 라틴아메리카에는 엄밀한 의미의 한국학 내지 아시아학 관련 학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소수정예의 발표로 수준 있는 학술대회를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초청교수 1~4인과 참가를 신청한 교수들로 패널이 구성된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개최된 제1회에서 제6회 학술대회까지 참가한 교수들의 소속대학 국적은 칠레, 한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미국, 캐나다, 스페인 등이다. 주제는 학제적 연구를 기본으로 하되 매년 조금씩 특색을 달리한다. 2012년까지는 주로 정치, 경제 등 사회과학 중심으로 패널이 구성되었다면 2013년에는 인문학적 접근을 목표로 언어학, 문학, 역사, 인류학 전공자들이 초청교수로 초대되었다. 2010년에는 각각 2008년과 2009년에 열린 제1회 및 제2회 한국학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 중 선별된 원고들이 『한국: 학제적 관점』(Corea: una visión interdisciplinaria)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2012년에는 2010년과 2011년에 열린 제3회, 제4회 한국학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 중 선별된 원고들이 『한국: 다학문적 접근』(Corea: un acercamiento multidisciplinario)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두 책은



제6회 국제한국학세미나에 참여한 Team Korea (출처: 필자)

모두 배포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이 중 『한국: 학제적 접근』은 2013년 아마존(Amazon)에서 전자책 판매를 시작했다.

한국학국제세미나는 또한 기존의 초청교수들을 중심으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를 구성했다. 국제위원회의 역할은 매년 초청 학자들을 추천하고, 학술대회에 참가하고자 학자들이 보내오는 논문초록을 읽고 발표할 논문을 선별하는 것이다. 또한 매 2년마다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선별하여 출판물을 내는 것을 목표로 좀 더 수준 높은 출판물을 내기 위해 2013년부터 국제출판위원회를 구성했다. 국제출판위원들은 칠레, 한국, 미국, 멕시코 교수들로 이루어져 있다. 2014년 11월 제7회 한국학국제세미나에서 세 번째 출판물을 선보이기 위해 국제출판위원들이 2012년과 2013년에 열린 제5, 6회 한국학국제세미나 발표논문을 읽고 출판에 적합한 논문을 추려 현재 출판을 준비 중에 있다.

한국에 조금은 과장되게 보도된 라틴아메리카의 한류 열풍을 흔히 한국학의 성공과 연결시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K-pop을 중심으로 일부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이미지가 이에 묻혀 그 이상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전쟁이

나 분단, 한강의 기적 같은 과거의 이미지와 K-pop이라는 이미지가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학 관련 수업을 듣고 한국학국제세미나의 후통일시물레이션에 참가했던 카리나(사회학)는 칠레가톨릭대학교의 한국학 수업과 활동이 교내는 물론 칠레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칠레의 공공정책과 사회발전 모델은 근본적으로 유럽이었다. 한국학 관련 수업과 논문대회, 그리고 한국학국제세미나는 유럽 이외의 다른 발전 모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이다.” 역시 수업과 후통일시물레이션에 참가했던 니콜라스(역사학)은 “한국학 관련 활동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K-pop 뿐만이 아닌 학문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기회였다”고 한다.

앞으로 아시아학센터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면 센터 내의 한국학프로그램 설치, 웹진발간 등 한국학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지난 몇 년간 칠레가톨릭대학교의 한국학은 차근차근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제껏 해 온 노력과 지원이 지속된다면 칠레가톨릭대학교의 한국학은 꾸준히 그 빛을 발할 것이라고 믿는다.

민원정 - 칠레가톨릭대학교 아시아학센터 한국학담당교수